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자발적 고독'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 심리학자 교수 ○○○입니다.

여러분, 'TMI'나 '관태기'와 같은 신조어를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머리글자로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한 거부감을, '관태기'는 '관계 권태기'를 줄인 말로 복잡하게 얽힌 인간 관계에 대한 권태를 드러내는 말이지요. 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거나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자연스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 불안감이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자발적 고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고독'은 타인에 의한 '고립'과는 구별됩니다. 남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립되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이는 불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타인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별다른 인지 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은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창의적 사고력이 증진되며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셈이지요. 또한 '유도된 심상'을 떠올리는 것도 자발적 고독을 즐기기에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롭게 바닷가에서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매끼니처럼 챙겨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토이 나를 위한 '1인분의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내용은 제 SNS에 남겨 주세요.

1. 다음은 위 강연을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강연 계획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발적 고독'의 방법을 안내해야겠군.
- ②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신조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해야겠군.
- ③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할 수 있으니 '자발적 고독'의 효과를 제시해야겠군.
- ④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과 타인에 의한 '고립'을 혼동할 수 있으니 그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군.
- ⑤ 학생들이 '자발적 고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겠군.

2.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③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강연의 마무리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강연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전체 강연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강연을 들은 청중들이 강연자의 SNS에 남긴 댓글이다. 강연 내용을 고려하여 청중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지] 강연 후기를 남겨 주세요.

심리학 교수 ○○○
오늘 제 강연에 귀 기울여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중 1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겠어요.

청중 2

겨울 방학 때 여행 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렸던 이유가 '유도된 심상'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네요.

청중 3

저는 교수님께서 자발적 고독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채웠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청중 4

교수님께서 자신을 들어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청중 5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멍하게 있는 시간'이 창의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 ① '청중 1'은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② '청중 2'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청중 3'은 비판적 태도로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청중 4'는 강연자의 의도를 확인한 후 강연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 ⑤ '청중 5'는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4~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동아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
- **예상 독자** : 동아리 업무 담당 교사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 동아리 '사고뭉치'의 부장을 맡고 있는 문호영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항상 마음 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점이 없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미니 자판기를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일 기억하시지요? 이처럼 저희 동아리는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아리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물로 제작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한 상상실이란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의 디지털 기기나 공작 도구가 마련된 공간을 말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무한 상상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고안한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제품을 만들 때마다 인근 대학교의 무한 상상실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어렵고, 이용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이 설치된다면 저희 동아리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동아리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제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발명에서 특허 출원까지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열심히 만든 발명품을 상품화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를 도와줄 전문가가 있다면 발명품의 완성도도 높이고, 발명가라는 꿈에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4. [A]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답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통해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의 내용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 료 >

(가) 통계 자료

1. ○○광역시 소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율 (단위 : %)

이유	응답률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 부족	45.7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부족	40.5
활동 예산 지원 부족	28.4
동아리 신설 제약	15.2
기타	7.0

2.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복 응답, 단위 : %)

(나) 신문 기사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이용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하는데, 최근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이커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교육정책관 ◇◇◇은 미국, 중국 등은 이미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이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미래 메이커 양성을 위해 발명 및 특허 과정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 인터뷰

발명 활동을 통해 제가 생각해 낸 작품을 제작하며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며 디지털 제작 도구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다른 학생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발명품을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 발명 동아리 부장 학생

- ① (가)-1을 활용하여, 학교 내 무한 상상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어 우리 학교에도 무한 상상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② (가)-2를 활용하여, 동아리 특성에 맞는 활동 공간의 부족이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임을 밝히고, 발명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발명품 제작 활동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명 동아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언급해야겠어.
- ④ (가)-2와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과 기능을 익혀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부각해야겠어.

6.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A]에 제시된 건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건의 주체와 관련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낼 것.

- ① 발명 활동을 통해 창의적 상상력의 싹을 틔우고 특허 출원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② 우리 학교에 무한 상상실을 설치한다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래의 발명가를 양성해 나가는 건인 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③ 다양한 창작과 공작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활동은 저희들의 아이디어에 현실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전문가를 통한 배움은 발명에 대한 흥미와 잠재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④ 무한 상상실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발명품을 제작하며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끈기와 소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⑤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현대 국어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임으로써 실제 높여야 할 인물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하였다.

- (1) 太子(태자) | 東門(동문) 밖기 나가시니
(태자께서 동문 밖에 나가시니)
- (2) 부텃 누니 비록 볼^ㄴ시나
(부처의 눈이 비록 밝으시나)

(1)의 '-시-'와 (2)의 '-ㄴ 시-'는 모두 현대 국어의 '-(으)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과 (2)에 쓰인 '-(으)시-'의 쓰임에는 차이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2)에서는 '부텃'의 신체 부분인 '눈'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하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뵈다' 등의 특수 어휘를 활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였다.

- (3) 너희 스승을 보습고져 호노니
(너희 스승을 뵈고자 하니니)
- (4) 부텃 敎化(교화)를 돕습고

(부처의 교화를 돕고)

(3)의 '-습-'과 (4)의 '-돕-'은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느냐 간접적으로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즉 (3)에서 '-습-'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비해, (4)에서 '-돕-'은 '敎化(교화)'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하고자 하는 대상인 '부텃'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7.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ㄱ~ㅍ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王(왕)ㅅ 일후믄 濕波(습파) | 러시니
(왕의 이름은 습파이시디니)

ㄴ. 님꺄 恩私(은사)를 값습고져
(임금의 은사를 값고자)

ㄷ. 龍王(용왕)이 世尊(세존)을 보습고
(용왕이 세존을 뵈고)

ㄹ. 太子(태자) | 講堂(강당)에 모도시니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ㅁ. 諸佛(제불)을 供養(공양)호습게 호쇼서
(제불을 공양하게 하소서)

- ① ㄱ에서는 '-시-'를 통해 '일후믄'을 높임으로써 '王(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② ㄴ에서는 '-습-'을 통해 '恩私(은사)'를 높임으로써 '님꺄'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③ ㄷ에서는 '-습-'을 통해 '世尊(세존)'을 높임으로써 '龍王(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④ ㄹ에서는 '-시-'를 통해 '太子(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 ⑤ ㅁ에서는 '-습-'을 통해 '諸佛(제불)'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8. 다음은 윗글과 관련된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활동] 문맥을 고려하여 ㉠~㉤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시오.

- 우리 할아버지의 치이는 여전히 ㉠ **튼튼하시다**.
- 언니가 고모님을 공손하게 안방으로 ㉡ **모시다**.
- 아버지께서는 저녁거리를 사러 장에 ㉢ **가시다**.
- 형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생각이 ㉣ **타당하시다**.

학생 1

나는 'b', 'c', 'a', 'd'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학생 2

나는 'b'와 'a', 'c', 'd'의 두 부류로 나누어 봤어.

- ① 소유물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② 높임 대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가의 여부
- ③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는가의 여부
- ④ 신체 부분을 높인 표현이 사용되는가의 여부
- 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활용되는가의 여부

[9~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의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중의 유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좋다.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달구어진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의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이 밖에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 <제4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줌 손 보아라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從事)* 하리라. <제5수>

새벽빛 나오자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일어나라 아희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밭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제6수>

① 보리밭 지어 담고 명이주 국을 끓여
배끓는 농부들을 진시(趁時)에* 먹여라
아희야 한 그릇 다오 친히 맛 보아 보내리라. <제7수>

서산에 해 지고 풀 끝에 이슬 맺힌다
호미를 둘러 메고 달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 이휘일, 「전가팔곡(田家八曲)」 -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
- * 입립신고(粒粒辛苦): 낱알마다 맺힌 수고로움.
- * 천사만중(千駟萬鍾): 여러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 * 종사(從事): 농사일을 시작함.
- * 백설: 온갖 새.
- * 진시(趁時)에: 진작에. 제때에.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④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10.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은 제1수는 서사로, 제2수부터 제5수는 '춘-하-추-동'으로, 제6수부터 제8수는 '새벽-낮-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어요.

제1수
[A]

제2수~제5수
[B]

제6수~제8수
[C]

자, 이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로 말해 볼까요?

- ①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어.
- ② [B]에는 사계절에 따라 '시작-노고-결실-준비'로 조응되는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어.
- ③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으로 둔 것이라 할 수 있어.
- ④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 ⑤ [C]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11. 밑글의 ㉠와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보리밭**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라.
 - 윤선도, 「만흥(漫興)」 중 -

- ① ㉠, ㉡는 모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③ ㉠는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는 노동의 기쁨을 드러낸다.
- ④ ㉠에는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에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12. <보기>는 밑글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자료 1 작가의 삶

이회일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하였다. 농민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대부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자료 2 '서전가팔곡후'에서 작가가 창작 동기를 밝힌 글

작가는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에서 '농사일을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을 노래로 나타낸다. <중략>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여 때때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라고 하며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혔다.

- ① [자료1]을 보니,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풍년을 이루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다.
- ② [자료1]을 보니,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자료1]을 보니, <제6수>에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료2]를 보니, <제3수>에는 전원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자료2]를 보니, <제4수>에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어떠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다르게 배분되며 불법행위 억제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법경제학에서는 법원이 적용 가능한 책임원칙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을 찾고자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주의 수준'과 '주의 기준'이다. 주의 수준이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한다. 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등과 같은 주의 비용은 커지지만, 불법행위 발생 확률이 줄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줄어든다. 주의 기준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주의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주의 수준이므로 법원은 이를 주의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을 살펴보자. ㉠**비책임원칙**은 불법행위는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원칙이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은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달리 ㉡**과실원칙**은 가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이때 과실이란 법원이 부여한 주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과실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만 주의 기준이 부여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비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되므로, 비책임원칙하에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매우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불법행위 억제에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항상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높아진다. 이때 가해자의 주의 수준은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 즉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법원이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이 정해 놓은 주의 기준을 지키려 한다. ㉢**결국 엄격책임원칙과 과실원칙은 모두,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 된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을 고려하는 책임원칙과 결합하여 피해자의 책임 여부까지 고려하는 책임원칙들이 있다. 먼저 ㉣**기여과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정의하

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항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 우선 과실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 가해자에게만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는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되면 피해자에게도 최적의 주의 수준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기여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책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과실은 기본적으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되, 피해자에게도 주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이 원칙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의 주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 비교과실은, 양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큰 쪽이 더 많은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비교과실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책임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여과실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아도 가해자가 항변을 통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구별된다.

13.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비교과실의 한계
- ② 불법행위의 개념
- ③ 불법행위법의 기능
- ④ 주의 수준에 대한 정의
- ⑤ 비교과실과 기여과실의 차이점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불법행위의 억제에 효율적이다.
- ② ㉡은 피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③ ㉢은 가해자의 책임 여부만 고려한다.
- ④ ㉠은 ㉡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 ⑤ ㉢은 ㉡과 달리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②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가해자의 주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주의 수준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④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주의 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합이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 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주의 기준을 부여해서 불법행위의 발생 확률이 최대화되는 지점으로 가해자의 주의 수준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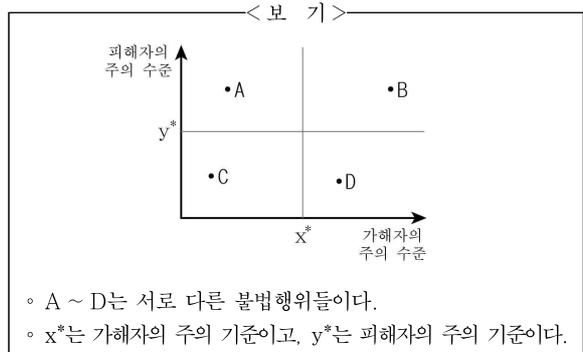
< 보 기 >

○영화 속 장면
 갑은 을이 제조한 변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는데, 한 달 후 변압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는 순간 변압기가 폭발하여 갑은 큰 화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을은 변압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를 본 학생의 반응
 여기서 갑은 피해자이고, 을은 가해자야. 그리고 변압기 폭발로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에 대해 엄격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 ① 학생은 갑에게 화상을 입게 만든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군.
- ② 학생은 갑이 입은 화상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생각했겠군.
- ③ 학생은 변압기가 폭발한 것과 관련하여 을의 주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았겠군.
- ④ 학생은 갑이 화상을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갑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겠군.
- ⑤ 학생은 을이 변압기 폭발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군.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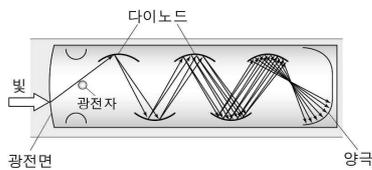


- ① A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y*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② B의 경우 가해자는 x*를 지켰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 ③ C의 경우 가해자도 x*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도 y*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④ A와 C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원칙을 적용하면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 ⑤ B와 D의 경우 가해자가 x*를 지켰으므로, 비교과실을 적용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재 시 불꽃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 ㉠ 걸쳐서 나타난다. 불꽃 감지기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여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탄소를 함유한 가연물이 연소할 경우 자외선은 약 $0.2\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적외선은 약 $2.7\mu\text{m}$ 와 약 $4.3\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최대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데, 불꽃 감지기 내부의 센서는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는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를 증배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광전자 증배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으로,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자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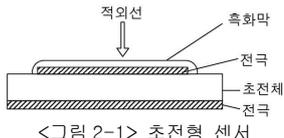


<그림 1> 광전자 증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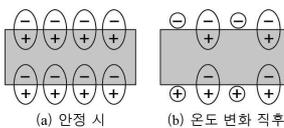
되어 있다.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음극 표면에 서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를 광전 효과라 한다.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제1 다이노드에서는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들은 다시 가속되어 제2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되어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상당히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미세한 자외선의 발생 유무도 감지할 수 있어 화재 상황에 ㉡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겐 일반적으로 초전형 센서와 특정 적외선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학 필터가 사용된다. 광학 필터를 통과한 적외선은 센서 표면의 열 흡수막인 흑화막에 의해 초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초전체는 온도가 변하면 분극이 변하는 물질이다. 분극이란 <그림 2-2>의 (a)와 같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발 분극이라고 한다. 초전형 센서의 초전체로는 자발 분극 특성을 ㉢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가 주로 활용된다. 초전형 센서에 적외선이 입사하면 강유전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자발 분극의 크기가 감소하고, 그 결과 <그림 2-2>의 (b)와 같이 전기적인 평형이 무너져 결합할 상대가 없는 자유 전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유 전하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센서는 초전체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전극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화재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게 된다.

한편 불꽃 감지기의 감지 가능 거리는 화염의 크기에 비례하



<그림 2-1> 초전형 센서



<그림 2-2> 초전체의 분극 변화

는데, 화재원이 감지기로부터 더 멀리 ㉣ 떨어져 있으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화염의 최소 크기 또한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 만약 어떤 불꽃 감지기가 2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한다고 했을 때, 화재원을 40m 위치에 ㉤ 두게 되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화염의 크기는 0.4m^2 이며, 화재원을 10m 위치에 두게 되면 0.025m^2 의 화염의 크기에도 경보를 울린다는 의미이다.

* μm :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 2차 전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전자가 기체 분자나 고체와 부딪힐 때 생기는 전자.

1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전자 증배관의 광전면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다.
- ②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불꽃을 감지하면 내부의 음전하와 양전하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③ 광전자 증배관의 제2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는 제1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보다 더 많다.
- ④ 불꽃 감지기는 불꽃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영역의 파장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알려준다.
- ⑤ 3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는 15m 거리에 있는 0.03m^2 크기의 화염도 감지할 수 있다.

19. 밑글의 광전자 증배관을 바탕으로 <보기>의 'UV 트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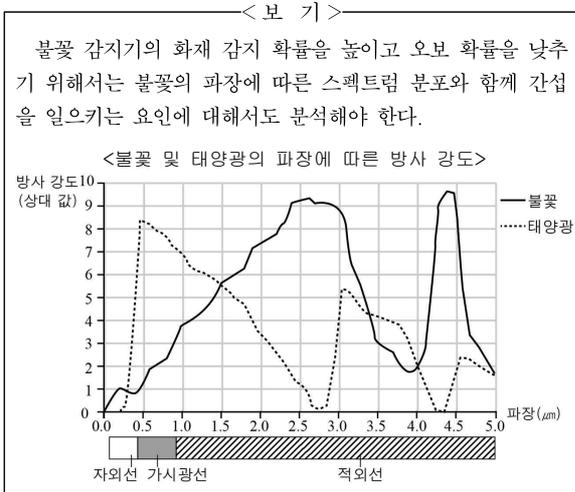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로는 'UV 트론'을 주로 사용한다. 자외선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된다. 이것은 양극에 도달할 때까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큰 전류가 급속도로 발생된다.

- ①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전자를 증배할 때 가스 분자를 활용하는군.
- ②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활용하여 불꽃의 파장을 감지하는군.
- ③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의 충돌 과정을 통해 큰 전류를 발생시키는군.
- ④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군.
- 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를 증배함으로써 미세한 자외선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군.

20. 윗글의 '초전형 센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전체에서 부유 전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다.
- ② 외부 자극에 의해 초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사라지는 순간 기전력 또한 소멸된다.
- ③ 흑화막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별해냄으로써 초전체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전극을 통해 강유전체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⑤ 초전형 센서는 불꽃 감지기 외부의 온도 변화를 적외선 파장으로 변환한 뒤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보내는 장치이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최대 방사 구간인 4.0 ~ 4.5 μm 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0.4 μm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③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동일한 지점들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④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0에 가까운 특정한 파장만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⑤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복사 에너지 중 약 3.4 ~ 4.0 μm 에 해당하는 파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22. ㉠ ~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날은 열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 ② ㉡: 그는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④ ㉣: 식당은 학생회관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⑤ ㉤: 소화기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아버이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견잡지 못하고 문득 ㉡ 시 두 소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뒤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려나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으레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標符)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아름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원컨대 자비하신 부처님께서서는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는 불좌 뒤 깊숙한 곳에 앉아서 동정을 살폈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 화장을 곱게 한 열굴이 마치 채운(彩雲)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얹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 다 향을 쬐운 뒤 세 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삼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달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님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 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말했다.

“좁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은 종이에 쓴 글을 읽어 보더니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때 반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환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종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썩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반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픽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

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되는 행동에 담긴 양생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여인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거 회상을 통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되묻는 방식을 통해 양생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

24.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화자의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고 있다.
- ② ㉠은 ㉡와 달리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는 ㉠에 비해 본심을 숨긴 채 우회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는 ㉠과 달리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 ⑤ ㉠과 ㉡는 모두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만복사지포기」의 양생은 불우한 삶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양생은 결국 현실에서 문체 해결의 출구를 만들지 못하다가 환상 세계의 존재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상 세계에서 이룬 욕망의 성취는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는 집에서,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여인이 양생에게 이곳의 사흘이 인간 세계의 삼 년과 같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질서가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양생이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환상 세계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했으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제한시간 35분